



나의 오리 사육기



사육회원
윤 창 원

1. 본인소개

원주시 무실동에서 태어나 중년에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쌍용양회 생산과에서 8년을 근무하였고 1982년 2월 중동 사우디에서 3년반 가량 근무 후 1986년 포항으로 내려와 포항제철 대성기업에서 절단공으로 다시 8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강원산업 미진상사에서 6년 근무 도중 절단기 역화로 오른팔에 4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1년간 입원 중 틈틈이 오리사육에 관심이 있어 병원에서 이론공부를 하고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 음식물 찌꺼기를 식당가에서 수거, 사료로 대체 사육해 봤으나 염분이 과다하여 판로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사육도중에도 이쑤시게 등으로 인한 폐사가 늘면서 3,000수를 덤핑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도에 포항의 영산만 사료공장 사장님의 권유로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백두농장을 임차하여 야생청둥오리를 4,000수 사육하고 50일 사육 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수매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소득도 있었습니다.

뼈아픈 그 당시의 교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부터 오리사육이든 제품판로든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문경축협 소장님으로부터 (주) 불로유황오리 제1농장 전북 무주에 30,000수 사육, 제2농장 문경에 20,000수 사육하는 것을 보고 저는 불로에 입사하여 1년간은 사육, 2년차에는 도계 가공식품 제조과정을 일일이 체크 문제점을 보완하며 과정들을 착실히 배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아이템이 좋고 기술 또

한 아무리 좋아도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본주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기술자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부권에 침체되어 있는 조류사업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인재를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익은 대표자 혼자 내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마음놓고 자기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면 다들 남다른 애정으로 보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류 사업의 메카로 중간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오리냉동육이 아닌 생물을 수출하여 선진국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의 이러한 계획이 결실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질책을 바라오며 두서없는 글 넓은신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2 당면문제

오리사육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 지난 해 세계 각국에서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오리소비가 급격히 감소되자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판매부진에 사로잡힌 등으로 경영난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통업자들은 오리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오리 납품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육자는 50일을 사육하여 오리 1마리당 1,300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중간유통업자는 오리 1마리당 생물의 경우 3,600원에 매입하여 소비처에 마리당 8,000~1,000에 거래하고 있는것만 보아도 생산자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나 유통업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3년 먹을 것은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리값이 비싸다고 하니깐 너도나도 사육을 해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오리값이 폭락하니 출하를 기피하게 되고 사료비는 증가합니다. 소비자는 오리가 귀하게 되자 오리고기값이 비싸져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결국 이래저래 소비시장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3 축사의 기본설계

1. 비닐하우스 설계

- ① 길이 64m, 넓이 6m, 높이 2.3m (1동의 평수 약 100평), 인치항 파이프 2m짜리 1.5m 간격으로 2줄 배열(1줄당 43개, 2줄당 86개 소요)
- ② 지붕용 하우스용 파이프 33×33(1.5m 간격으로 64개 소요)
- ③ 하우스용 광폭비닐
- ④ 보온덮개 1장 길이 15m 폭 1.5m
1동 시공시 44장 필요함
- ⑤ 1차 비닐 씌우고 2차 보온덮개, 3차 비닐, 4차 그늘막으로 마무리함
- ⑥ 평당시공단가는 전기, 사료라인, 급수포함 7만원선



100평 × 7만원 = 7백만원 × 6동 = 4천2백만원 소요

- ⑦ 추가비용 추후검토
 - 축사바닥에 난상슬레트를 깔아 오리가 분변을 쪼아먹는 것을 방지 방역비 대폭 절감
- ⑧ 매일 아침마다 깔짚용 왕겨 깔아줌 - 호흡기 질병 예방
- ⑨ 퇴비배출량이 1/10로 절감, 환경개선효과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축사안이 쾌적함

2. 축사설계시 유의사항

- ① 축산농가가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전하는데 착오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의 흐름을 모르는 것이다.
- ② 방위는 동서를 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북반부의 편서풍지역에 위치한 곳에서 고온기의 자연바람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위는 건물의 긴 한쪽면이 남쪽을 향하는 것이 가장 좋다.
- ③ 축사부지는 주변보다 높게 터를 잡아야 우기철에 집중호우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가능하다면 계단식으로 축사를 신축한다면 관리가 용이하다.
- ④ 통풍장애로부터 30m 이내에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물이나 산이 없어야 한다. 통풍 장애물은 그 높이의 5~10배의 거리까지 자연풍속의 방향변화에 감속의 원인이 된다.
- ⑤ 건물높이의 범위는 6~9피트 1.8~2.7m이며 벽의 높이는 하한 30인치 (76cm)이다.
- ⑥ 지붕의 물매는 4~5 12로 하며 원치커튼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 ⑦ 지붕밑에서 30cm 띄워서 보온덮개를 씌우면 환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3. 단열의 중요성

- ① 양계농가의 생산성에 미치는 요소 가운데 첫째 온도와 습도는 기본적 요인이다. 오리의

경우 자체적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리적 기능이 있는데 겨울철에 비해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피해가 더 커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

- ② 오리는 생리적으로 41도의 고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급격한 환경에서는 적응력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온도와 습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오리의 체내에서 열의 75%가 체외로 손실되기 때문에 실내의 온도는 21도가 가장 좋다.
- ④ 고온에서는 열을 발산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고 체내의 열 발산량과 수분함량도 많아지며 이 때 음수량이 증가하면서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울러 이산화탄소 또한 증가한다.
- ⑤ 영하 10도 이상일 때는 체온을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 사료를 늘려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⑥ 단열의 수치가 낮으면 층아리가 대량발생되고 5~7일경에는 대량 폐사가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 축사를 지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 ⑦ 단열이 되어있지 않은 축사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벽면 마대지 + 한바론 + 보온덮개 등으로 시공한다.

4 오리새끼 구입 및 선택

우선 능력이 좋은 새끼오리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축산농가의 경영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오리새끼가 지닌 유전능력 즉 육성율, 성장률, 사료율 품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육환경 즉 종오리 관리와 부화장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새끼오리 선택은 우수한 종오리 품종을 보유하고 철저한 종오리 관리를 하고 있는 오리 전문 부

화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출하일령 6~7주에 체중이 3.0kg 이상 사료요구일은 30 이하로 체질이 강건하고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것이 좋다.

육색은 황색으로 맛과 질이 좋고 냄새가 없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

5 오리의 품종

| 수입국가 | 제품명 | 일령 | 체중 |
|-----------|--------|----|-------|
| 프랑스 그리드사 | 스타 63 | 42 | 3.4kg |
| 독일 슈든스톨레사 | 비이탈 헤비 | 42 | 3.4kg |
| 영국 체리벨리사 | 체리벨리 | 42 | 3.4kg |

6 실무배치

- ① 투자자 5명이 각자 3천만원씩 투자(자본금확보)
영농조합이나 작목만 구성

- ② 주당 2천수씩 월 1만수를 1차목표(향후 3만수 사육 목표)
- ③ 새끼오리 구입 1마리당 800원 (1만수 8백만원)
- ④ 1만수 사육시 월 사료비 9백만원
- ⑤ 45일 출하 1마리당 8,000원 × 1만수 = 8천만원
- ⑥ 종자대금, 사료비, 전기가스, 기타잡비 2천8백만원
- ⑦ 월별 5천2백만원 실순수입
- ⑧ 52,000,000원 ÷ 5명 = 1인당 7,560,000원

※ 위의 사양조건표는 식용 오리만을 근거로 제시

